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요인 검증

김소영* · 윤기봉**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체계, 부모체계, 또래체계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KCYPS)의 중학교 1학년 총 2,348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차함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다. 둘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는 개인내적 요인 중 성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쳤고, 부모의 양육태도 중 감독, 애정, 일관성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애착 중 신뢰, 소외가 영향을 미쳤다. 셋째, 청소년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부모의 애정양육, 부모의 일관성 양육, 또래 내에서의 소외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종단적인 접근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을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체계, 부모체계, 또래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청소년 삶의 만족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부모양육, 또래관계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minashoho39@naver.com

I. 서 론

최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한 ‘2015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에서 한국 아동·청소년의 20%는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관적 행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3개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은 대학입시와 성적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Lee, 2003), 낮은 행복수준과 낮은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약물 오용, 인터넷 중독, 신체활동 부족, 낮은 정신건강과 높은 위험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inda & 오세숙, 2011). 이는 한국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이현철, 최성보, 2012). 청소년의 낮은 삶의 만족도는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Yang, 2008), 한국 청소년의 낮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적절한 시기에 개입 및 예방적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짐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국내 연구들에서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 ‘삶의 질’, ‘심리적 안녕’, ‘행복’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성은모, 김균희, 2013; 송정화, 2011; 이현철, 최성보, 2012). 그러나 ‘삶의 질’은 가장 넓은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며, ‘행복’은 쾌락주의 입장의 ‘주관적 안녕’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거나, 자기실현적 입장의 ‘심리적 안녕’으로 대변되기도 한다(권석만, 2010; 김신영, 백혜정, 2008).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인지적인 측면, 즉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응답한 삶의 만족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한 시점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다른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횡단적인 접근만으로는 변수들 간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 양상과 개인 차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선행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와 고

등학교 시기의 삶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나, 대체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김신영, 백혜정, 2008;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최유신, 손은령, 2015; 황혜정, 김이경, 2015).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급변하게 나타내는 시기인 만큼 청소년기 연령에 따라 관련 요인들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다르게 영향을 미쳐, 중학교 시기를 거쳐 고등학교 시기까지 삶의 만족도의 발달적 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생태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인 변인들로는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및 인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소득수준, 건강, 종교, 학력 등의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며(김혜원, 홍미애, 2007; Chung, 이상균, 유조안, 2015; Glenn & Weaver, 1979), 두 번째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성격, 통제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 등이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김연화, 2010; 송정화, 2011; 신태섭, 이현주, 권희경, 2015; 임정하, 2006; Grob, Little, Wanner & Wearing, 1996; Veenhoven, 1994). 마지막으로 관계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인식,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관계, 관계 효능감, 교사관계 등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다(구현영 외, 2006; 김신영, 백혜정, 2008; 박영신, 김의철, 2009; Cohen & Wills, 1985; Demir, Özdemir & Weitekamp, 2007; Piko & Hamvai, 20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성별,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이 있다. 먼저, 삶의 만족도에 있어 성차를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차가 없었다는 연구(Francis, 1998; Kousha & Mohseni, 2000)도 있으나, 대체로 성차가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5; 최유신, 손은령, 2015; Lay, Ang, Chong & Huan, 2007; Nes, Czajkowsky, Roysamb, Reichboon-kjennerud & Tambs, 2008). 두 번째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

(Rosenberg, 1979)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전혜진, 유미숙, 2015; 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Cheng & Furnham, 2003)고 일관되게 보고된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내부 및 외부 문제를 유연하고 여유롭게 대처하고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극복하며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통해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게 하는 적응 능력을 의미한다(조은희, 2007; Tellegen, 1985).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다양한 환경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조절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만족하며(송정화, 2011),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 지각을 형성하여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김선아, 2012; 김연화, 2010).

많은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대인관계에도 주목했다. 그 중에서 부모와 또래는 일관되게 청소년에게 중요한 관계로 나타났다(박영신, 김의철, 2006;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Furnham & Cheng, 2000; Holder & Coleman, 2009).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보고되었으며(안나영, 유영달, 2013; Holder & Coleman, 2009; Suldo & Huebner, 2004), 부모의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청소년의 개인 내적 및 외적 발달 전반에 영향을 주는 변인(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으로 알려져 있다. 즉, 부모의 수용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높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Cheng & Furnham, 2004), 부모의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양육은 청소년의 높은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예측했다(한유선, 1996).

또한 청소년기에는 또래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또래의 영향력은 증가한다. 많은 선행연구들도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혀왔는데(박병선, 배성우, 2012; 조성연 외, 2011; Cohen, 1988; Hotard, McFatter, McWhirter & Stegall, 1989), 또래관계가 원만하고 또래애착이 높은 청소년이 삶의 만족이 높았고(고영남, 2008; 조진만, 강정환, 이병규, 2012), 또래 간의 높은 지지와 도움은 청소년의 적응 및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이재경, 조혜정, 2012),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청소년이 더 높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였다(조은정, 2014). 16-20세 청소년의 또래 애착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국외연구(Armsden & Greenberg, 1987)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개인의 개인내적 요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변인의 영향력에 주목한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적 시점에서 변인들 간의 관련성만을 살펴본 단편적인 관계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증진을 위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삶의 만족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즉, 그 발달궤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발달적 변화에 관련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시간에 따른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추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개인체계와 부모체계 및 또래체계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학교 1학년의 1, 3, 4, 5차년도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중학교 1학년의 1차~5차년도 자료 중 삶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던 2차년도 데이터를 제외한 1차, 3차, 4차,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되, 독립변인 문항에 대해 모두 무응답인 경우를 제외하고 총 2,348명의 사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2,348)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	1,173(50.0%)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75(3.5%)	
	여	1,175(50.0%)		고졸	930(42.9%)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78(3.6%)		전문대졸	280(12.8%)	
	고졸	1262(57.5%)		대졸	745(34.4%)	
	전문대졸	282(12.9%)		대학원졸	138(6.4%)	
	대졸	511(23.3%)				
	대학원졸	60(2.7%)				
어머니 직업*	관리자	103(8.4%)		아버지 직업*	관리자	489(26.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32(19.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84(9.8%)
	사무종사자	229(18.7%)			사무종사자	288(15.4%)
	서비스종사자	260(21.3%)	서비스종사자		277(14.8%)	
	판매종사자	164(13.4%)	판매종사자		86(4.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9(2.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57(3.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79(6.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203(10.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9(4.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64(8.7%)	
	단순노무종사자	77(6.3%)	단순노무종사자		116(6.2%)	
			군인	7(4.0%)		

* 무응답에 의한 결측값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은 1, 3, 4,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인은 모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

다(1점), '그런 편이다(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평가되었으나, 이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더 높도록 하였다.

1) 종속변인

(1)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삶의 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 외(2006)의 척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의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1차년도 .82, 3차년도 .82, 4차년도 .81, 5차년도 .78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인

(1) 개인체계

개인내적 요인으로는 성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을 살펴보았으며, 성별은 남학생은 0, 여학생은 1으로 코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행동과학연구소(2000)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등의 10문항으로 되어있으며,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2, 5, 6, 8, 9번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이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Block와 Krema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수정·보완한 유성경과 심혜원(2002)의 문항을 재인용한 권지은(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

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자아탄력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다.

(2) 부모체계

부모의 양육태도는 허묘연(1999)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감독(3문항), 애정(4문항), 일관성(3문항), 과잉기대(4문항), 과잉간섭(4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독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정의 경우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내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일관성은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치신다’, ‘부모님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며,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과잉기대는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럽다’,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등의 문항으로, 과잉간섭은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하시며 내게는 못하게 하신다’,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리적 설명은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신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감독 .77, 애정 .82, 일관성 .61, 과잉기대 .71, 과잉간섭 .65, 합리적 설명 .75이다.

(3) 또래체계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25문항의 부모·또래애착척도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중 또래애착 문항을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9문항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 척도는 의사소통(3문항), 신뢰(3문항), 소외(3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의사소통 변인과 신뢰 변인의 상관관계가 .74로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서 문제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신뢰요인만 사용하였다(최현철, 2010). 신뢰는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

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를 믿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외는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등으로 구성된다. 신뢰는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의 경우에는 점수가 낮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신뢰 .77, 소외 .66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추정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동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점수를 수집한 것으로, 여러 시점에서 측정된 개인의 특성은 그 개인에게 내재되는(nested) 위계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내 수준(intraindividual level)인 1수준 모형에서는 개인별 반복측정치로부터의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개인간 수준(interindividual level)인 2수준 모형에서는 1수준에서 추정한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한다. 기술통계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고, 다층모형은 HLM 7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4번(1차, 3차, 4차, 5차)에 걸쳐 조사된 종단자료이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결측치가 증가(3차: 93명→4차: 242명→5차: 295명)하였다. 그러나 다층모형에서는 모든 측정 시점에서 응답한 완전자료가 아니어도 분석이 가능(Raudenbush, Bryk, Cheong & Congdon, 2004; 홍세희, 2015)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가 있는 사례도 제외하지 않고 총 2,348명을 분석하였다.

표 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N = 2,348)

변수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인 (1-5차)	청소년 삶의 만족도	중 1 (n=2,348)	8.463	2.206	3.0	12.0
		중 3 (n=2,256)	8.567	2.079	3.0	12.0
		고 1 (n=2,106)	8.479	1.830	3.0	12.0
		고 2 (n=2,089)	8.402	1.769	3.0	12.0
독립 변인 (1차)	개인 체계	성별	남 50.0%, 여 50.0%			
		자이탄력성	40.643	6.260	14.0	56.0
		자이존중감	27.933	5.054	11.0	40.0
	부모 양육	감독	9.474	1.948	3.0	12.0
		애정	12.026	2.612	4.0	16.0
		일관성	7.004	2.036	3.0	12.0
		과잉기대	10.504	2.645	4.0	16.0
		과잉간섭	9.659	2.521	4.0	16.0
		합리적설명	8.457	2.011	3.0	13.0
	또래 애착	신뢰	9.095	1.903	3.0	12.0
소외		6.060	1.923	3.0	12.0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중학교 1학년(M = 8.463, SD = 2.206)에 비해 중학교 3학년(M = 8.567, SD = 2.079)에는 소폭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M = 8.479, SD = 1.830)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고등학교 2학년(M = 8.402, SD = 1.769)까지 감소하여, 변화의 양상은 이차함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개인체계 중 자이탄력성은 평균 40.643, 자이존중감은 평균 27.933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태도 중 감독이 평균 9.474, 애정이 평균 12.026, 일관성이 평균 7.004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애착 중 신뢰가 평균 9.095, 소외가 평균 6.060이었다.

2. 다층모형

1)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

(1) 무조건 평균모형

먼저,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개인의 생태학적 인 요인들이 설명할 수 있는 변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을 계산하였다. 개인의 시간수준에서 생성된 변량(τ_{00})은 1.553이고, 개인의 생태학적 특성들에서 생성된 변량(σ^2)는 2.412로 차이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 = 7990.283, p < .001$). 계산한 결과, ICC는 .392로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총 변량 중 개인의 여러 생태학적 요인들의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39.2%이었다.

(2) 무조건 성장모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초반에 증가 후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므로, 이에 따라 이차함수 모형을 적용하였다. 시점 t에서 청소년 i의 삶의 만족도 측정치를 선형 기울기, 이차함수 기울기, 그리고 각 개인과 개인내 시간의 흐름에 대한 무선오차(random error)의 함수로 추정하였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

$$1\text{수준: 삶의 만족도 } Y = \pi_{0i} + \pi_{1i}(\text{time}) + \pi_{2i}(\text{time})^2 + e_i, \quad e_i \sim N(0, \sigma^2)$$

$$2\text{수준: } \pi_{0i} = \beta_{00} + r_{0i}$$

$$\pi_{1i} = \beta_{10} + r_{1i}$$

$$\pi_{2i} = \beta_{20} + r_{2i}$$

시간의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와 그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추정하기 위해 다층모형을 적용한 결과는 표 3, 표 4 및 그림 1, 그림 2와 같다. 시간 값은 중1, 중3, 고1, 고2를 각각 0, 2, 3, 4로 코딩하여 계산하였고, 모형에서의 절편은 1차 조사가 이루어진 중학교 1학년 때의 응답한 삶의 만족도로, 초기치를 의미한다. 초기치(8.466, $p < .001$) 및 일차함수 변화율(0.103, $p < .05$), 이차함수 변화율

(-0.030, $p < .01$) 평균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그에 따른 개인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차함수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 초기치의 평균은 8.466이고, 일차함수 변화율 평균은 0.103, 이차함수 변화율 평균은 -0.030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다가 그 증가율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와 같이, 초기치와 일차함수 변화율의 상관은 -0.492, 일차함수와 이차함수 변화율의 상관은 -0.953이므로, 초기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더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폭은 더 감소한다. 이런 양상은 그림 1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3

이차함수를 적용한 무조건모형 결과

		변수	계수	표준오차
고정 효과	β_{00}	초기치	8.466***	0.046
	β_{10}	일차함수 변화율	0.103**	0.038
	β_{20}	이차함수 변화율	-0.030***	0.009
무선 효과	τ_{00}	초기치 분산	1.723***	
	τ_{11}	일차함수 변화율 분산	0.891***	
	τ_{22}	이차함수 변화율 분산	0.158***	

*** $p < .001$, ** $p < .01$.

표 4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과 상관

		변수	공분산	상관
공분산 (상관)	τ_{01}	초기치와 일차함수 변화율	-0.754	-0.492
	τ_{12}	일차함수 변화율과 이차함수 변화율	-0.134	-0.953
	τ_{02}	초기치와 이차함수 변화율	0.077	0.285

또한 삶의 만족도 초기치(1.723, $p < .001$)와 일차함수(0.891, $p < .001$) 및 이차함

수(0.158, $p < .001$)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중학교 1학년 때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및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있어서 모두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즉, 삶의 만족도 초기치와 두 변화율 모두에서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을 투입한 조건모형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2는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를 보기 위해 전체 표본 중 5%를 무선표집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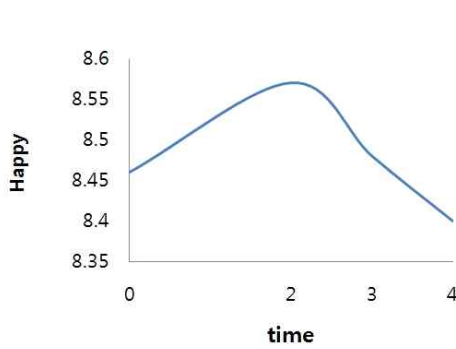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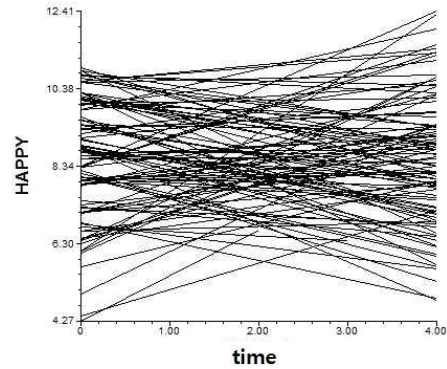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서의 개인차 그래프

2)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 독립변수의 효과검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어떤 특성들이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건모형을 구성해 검증하였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측정한 독립변수들은 한 시점에 측정한 값으로 개인내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청소년의 개인체계, 부모체계, 또래체계에 대한 변수를 2수준에 투입하여, 시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변화양상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

$$1\text{수준: 삶의 만족도 } Y = \pi_{0i} + \pi_{1i}(\text{time}) + \pi_{2i}(\text{time})^2 + e_i, \quad e_i \sim N(0, \sigma^2)$$

$$2\text{수준: } \pi_{0i} = \beta_{00i} + \beta_{01i}(\text{성별}) + \beta_{02i}(\text{자아존중감}) + \beta_{03i}(\text{자아탄력성}) + \beta_{04i}(\text{감독})$$

$$\begin{aligned}
 & \text{양육}) + \beta_{05i}(\text{애정양육}) + \beta_{06i}(\text{일관적양육}) + \beta_{07i}(\text{과잉기대양육}) + \beta_{08i} \\
 & (\text{과잉간섭양육}) + \beta_{09i}(\text{합리적설명양육}) + \beta_{010i}(\text{또래신뢰}) + \beta_{011i}(\text{또래소외}) + r_{0i} \\
 \pi_{1i} = & \beta_{10i} + \beta_{11i}(\text{성별}) + \beta_{12i}(\text{자아존중감}) + \beta_{13i}(\text{자아탄력성}) + \beta_{14i} \\
 & (\text{감독양육}) + \beta_{15i}(\text{애정양육}) + \beta_{16i}(\text{일관적양육}) + \beta_{17i}(\text{과잉기대양육}) + \\
 & \beta_{18i}(\text{과잉간섭양육}) + \beta_{19i}(\text{합리적설명양육}) + \beta_{110i}(\text{또래신뢰}) + \beta_{111i}(\text{또래} \\
 & \text{소외}) + r_{1i} \\
 \pi_{2i} = & \beta_{20i} + \beta_{21i}(\text{성별}) + \beta_{22i}(\text{자아존중감}) + \beta_{23i}(\text{자아탄력성}) + \beta_{24i} \\
 & (\text{감독양육}) + \beta_{25i}(\text{애정양육}) + \beta_{26i}(\text{일관적양육}) + \beta_{27i}(\text{과잉기대양육}) + \\
 & \beta_{28i}(\text{과잉간섭양육}) + \beta_{29i}(\text{합리적설명양육}) + \beta_{210i}(\text{또래신뢰}) + \beta_{211i}(\text{또래} \\
 & \text{소외}) + r_{2i}
 \end{aligned}$$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먼저 개인 체계 내에서 성별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만 유의하였다. 즉,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삶의 만족도를 더 많이 느끼지만, 이후 변화율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초기치 및 일·이차 변화율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삶의 만족도도 많이 느끼며,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만족도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자아탄력성이 낮으면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았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만족도의 감소폭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 중에서는 감독양육은 초기치에, 애정과 일관성은 초기치 및 일차함수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을 할수록 청소년은 초기에 삶의 만족도를 더 많이 느꼈고 이로 인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삶의 만족도의 증가세가 더디었지만, 이후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감소폭도 적었다. 이와 비슷하게, 부모가 일관적인 양육을 할수록 청소년은 더 삶의 만족도를 느끼며, 삶의 만족도의 증가세가 크지 않지만 이후 감소폭은 적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또래체계 중 신뢰, 소외 모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초기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 소외만 일차함수 변화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또래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또래사이에서 소외감을 더 느끼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고 그 증가폭도 낮았다.

표 5
이차함수를 적용한 조건모형 결과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초기치			
β_{00}	절편	-0.934*	0.370
β_{01}	성별	-0.463***	0.070
β_{02}	자이존중감	0.197***	0.008
β_{03}	자이탄력성	0.047***	0.007
β_{04}	감독양육	0.048*	0.019
β_{05}	애정양육	0.136***	0.018
β_{06}	일관적양육	0.054**	0.020
β_{07}	과잉기대양육	-0.032	0.017
β_{08}	과잉간섭양육	-0.014	0.019
β_{09}	합리적설명양육	0.010	0.022
β_{010}	또래신뢰	0.053*	0.021
β_{011}	또래소외	-0.093***	0.020
일차함수			
β_{10}	절편	3.324***	0.416
β_{11}	성별	0.029	0.078
β_{12}	자이존중감	-0.070***	0.009
β_{13}	자이탄력성	-0.023**	0.007
β_{14}	감독양육	-0.013	0.021
β_{15}	애정양육	-0.042*	0.021
β_{16}	일관적양육	-0.047*	0.023
β_{17}	과잉기대양육	0.030	0.019
β_{18}	과잉간섭양육	-0.010	0.021
β_{19}	합리적설명양육	-0.019	0.024
β_{110}	또래신뢰	0.028	0.024
β_{111}	또래소외	0.054*	0.022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이차함수			
β_{20}	절편	-0.417***	0.101
β_{21}	성별	-0.005	0.019
β_{22}	자아존중감	0.008***	0.002
β_{23}	자아탄력성	0.004*	0.002
β_{24}	감독양육	0.001	0.005
β_{25}	애정양육	0.004	0.005
β_{26}	일관적양육	0.009	0.006
β_{27}	과잉기대양육	-0.007	0.005
β_{28}	과잉간섭양육	0.003	0.005
β_{29}	합리적설명양육	0.004	0.006
β_{210}	또래신뢰	-0.004	0.006
β_{211}	또래소외	-0.009	0.005

*** $p < .001$, ** $p < .01$, *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를 밝히고, 개인내적 요인, 부모양육, 또래관계 변인들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초기에는 소폭 증가하다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폭은 감소했다. 즉, 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를 거치며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2차 함수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시기보다 고등학교 시기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

는 많은 연구들(김신영, 백혜정, 2008; 신미, 진성희, 유미숙, 2010; 최유선, 손은령, 2015; 황혜정, 김이경, 2015)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나아가 중학교 시기 내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중학교 입학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비해 중학교 3학년 시기는 상대적으로 친숙한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된 시기인 만큼,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긍정적인 정서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 고등학교 시기에는 한국의 교육정서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입시에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점차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발달에서 초기치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개인내적 요인 중 성별과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부모의 감독, 애정, 일관적 양육 및 또래 신뢰, 또래 소외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가 감독양육과 애정적인 양육, 일관적인 양육을 할수록, 청소년이 또래와의 신뢰가 깊고, 또래 내에서 소외감을 덜 느낄수록 중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5; 최유선, 손은령, 2015; Lay, Ang, Chong & Huan, 2007; Nes et al., 2008)을 지지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 및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들(김연화, 2010; 전해진, 유미숙, 2015; 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Cheng & Furnham, 2003)을 또한 지지한다. 덧붙여, 부모가 감독적, 애정적, 일관적 양육을 하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손보영 외, 2012; Cheng & Furnham, 2004; Suldo & Huebner, 2004)과 맥락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초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또래관계의 영향에 대한 결과는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재경, 조혜정, 2012; 최유선, 손은령, 2015; Armsden & Greenberg, 1987)과 일치한다. 그러나 청소년에게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난 후의 해소감이나 관계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best friend)나 이성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할 수 있다(Bagwell & Schmidt, 2013).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한다면, 또래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좀 더 폭넓게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개인내적 요인 중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 중 애정과 일관성이, 또래애착 중 소외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발달과정에서의 개인별 차이에는 개인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또래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는 부모나 또래보다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보다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개인의 특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초기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모의 양육이나 또래 애착의 경우,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과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기 초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에 이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신태섭, 이현주, 권희경, 2015; 임정하, 2006),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추이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는 부모 혹은 또래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들(김선아, 2012; 석말숙, 구용근, 2015;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로도 지지된다. 또한 청소년은 가정이나 학교, 또래와 같은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성찰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함에 따라(Erikson, 1994), 자신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통찰하며 동일한 환경 변화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높은 자아탄력성과 높은 자아존중감은 보다 긍정적 발달과 적응을 이끌어 내고 긍정적 자기통찰을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의 감소폭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패널 데이터에서 사용가능한 변인만을 포함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인 시각을 위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이 추가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이 시간 의존적 변수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간 독립적 변수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즉, 청소년기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급변하게 나타내는 시기인 만큼 독립변인들 또한 청소년기 동안 변화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들 또한 시간의 존적 변수로서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청소년의 종단적인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중학생만 또는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한 시점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청소년기 전반에서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또래라는 환경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보았는데, 각 요인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함의를 얻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부모와 또래의 효과는 보다 일시적이었으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은 시간이 지나도 개인차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상담 및 지도 시 또래관계 개선과 부모와의 소통 증진 프로그램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개인내적 자원에 초점을 두고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야하며, 정책 수립 시에도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계획·운영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고영남 (2008). 중학생의 부 애착, 모 애착, 또래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열린 교육연구**, 15(2), 111-131.
- 구현영, 박현숙, 장은희 (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대한간 호학회지**, 36(1), 151-158.
- 권석만 (2010).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욕망과 행복의 관계. **철학사상**, 36, 121-152.
- 권지은 (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아 (2012). 남녀중학생의 사회적 관계(부모, 또래, 교사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0(4), 15-26.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1,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연화 (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7-307.
- 김혜원, 홍미애 (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 연구**, 14(2), 269-297.
- 박병선, 배성우 (2012). 대인관계와 학교성적이 학교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학교급별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4(3), 215-238.
-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399-429.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2), 121-154.
- 석말숙, 구용근 (2015). 가족요인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55-74.
- 성은모, 김균희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4), 177-202.
- 손보영, 김수정, 박지아, 김양희 (2012).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149-173.

- 송정화 (2011). **다층모형을 적용한 학생 행복의 설명요인 탐색**.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신태섭, 이현주, 권희경 (201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 관계. **열린교육연구**, 23(3), 45-64.
- 안나영, 유영달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 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우울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3201-3215.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학연구**, 16(4), 189-206.
-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5). **2014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이재경, 조혜정 (2012).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0, 41-71.
- 이현철, 최성보 (2012).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 종단 분석. **사회과학연구**, 51(2), 159-187.
- 임정하 (2006). 한국적 부모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발달특성과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3(1), 135-151.
- 전혜진, 유미숙 (2015).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및 미시체계 변인의 경로분석. **청소년학연구**, 22(6), 75-104.
-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9(3), 87-98.
- 조은정 (2014).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7, 104-127.
- 조은희 (2007). **대안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 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진만, 강정환, 이병규(2012). 가족구조와 친구연결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사회과학논집**, 43(1), 47-71.

- 최유선, 손은령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 최현철 (2010). **사회통계방법론**. 파주: 나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 1-5차 조사 유저가이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행동과학연구소 (2000). **심리척도핸드북 I**. 서울: 학지사.
- 한유선 (1996). **청소년의 주변환경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정환경 및 학교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15). **종단자료 분석을 위한 다층모형**(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발표자료). 서울: S&M 리서치 그룹.
- 황혜정, 김이경 (2015). 한국 중등학생의 행복도 및 진로 인식 분석 연구. **한국교육문제 연구**, 33(2), 21-37.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gwell, C. L., & Schmidt, M. E. (2011). *Friendship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US: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1), 1-44.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Cheng, H., & Furnham, A. (2003). Personality, self-esteem, and demographic predictions of happiness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6), 921-942.

- Cheng, H., & Furnham, A. (2004).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self-esteem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1), 1-21.
- Chung, G. H., 이상균, 유조안 (2015). 청소년들은 어떤 날 더 행복한가?: 부모와의 친밀감이 일상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가구소득과 학교 급에 따른 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3-23.
- Cohen, S. (1988). Psychosocial models of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etiology of physical disease. *Health Psychology*, 7, 269-297.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
- Demir, M., Özdemir, M., & Weitekamp, L. A. (2007). Looking to happy tomorrows with friends: Best and close friendships as they predict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8(2), 243-271.
- Erikson, E. H. (1994). *Identity: Youth and crisis*(No. 7). New York: Norton.
- Francis, L. J. (1998). Happiness is a thing called stable extraversion: A further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xford Happiness Inventory and Eysencks dimensional model of personality and gen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1), 5-11.
- Furnham, A., & Cheng, H. (2000). Perceived parental behaviour, self-esteem and happiness. *Society of Psychiatric Epidemiology*, 35, 463-470.
- Glenn, N. D., & Weaver, C. N. (1979). A note on family situation and global happiness. *Social Forces*, 57(3), 960-967.
- Grob, A., Little, T. D., Wanner, B., & Wearing, A. J. (1996). Adolescents' well-being and perceived control across 14 sociocultural contex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4), 785-795.
- Holder, M. D., & Coleman, B. (2009). The contribution of social relationships to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3), 329-349.
- Hotard, S. R., McFatter, R. M., McWhirter, R. M., & Stegall, M. E. (1989). Interactive effects of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social relationships on

-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2), 321.
- Kousha, M., & Mohseni, N. (2000). Are Iranians happ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2(3), 259-289.
- Lay, S. Y., Ang, R. P., Chong, W. H., & Huan, V. S. (2007).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 concerns and emotional well-being: Perceptions of Singaporean adolescent stud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8(1), 63-80.
- Lee, M. (2003). Korean adolescents' "examination hell" and their use of free tim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99, 9-22.
- Linda, L. Caldwell, & 오세숙. (2011). 한국청소년의 여가, 건강, 그리고 행복에 대한 고찰.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5(3), 173-180.
- Nes, R. B., Czajkowski, N., Røysamb, E., Reichborn-Kjennerud, T., & Tambs, K. (2008). Well-being and ill-being: Shared environments, shared gene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4), 253-265.
- Piko, B. F., & Hamvai, C. (2010). Parent, school and peer-related correlate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10), 1479-1482.
- Pinquart, M., & Sorensen, S. (2000). Influences of socioeconomic status, social network, and competence on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A meta-analysis. *Psychology and Aging*, 15, 187-224.
- Raudenbush, S. W., Bryk, A. S., Cheong, Y. F., Congdon, R., & du Toit, M. (2004). *HLM 6: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Lincolnwood,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uldo, S. M., & Huebner, S. (2004). The role of lif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tive parenting dimension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165-195.

Tellegen, A. (1985). Structures of moo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d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er (Eds.), *Anxiety and anxiety disorders*(pp. 681-706). Hisdale: NJL Erlbaum.

Veenhoven, R. (1994). Is happiness a trait?. *Social Indicators Research*, 32(2), 101-160.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1972 to 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ABSTRACT

Estimating adolescents'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Tests of the effects of factor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uch changes

Kim, Soyoung* · Yun, Kibong*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nd the effects of individual factors, parenting behaviors, and peer relationship in such changes. To accomplish these goals, a Latent Growth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first, third, fourth, and the fifth wave of the longitudinal panel data set of 2,348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taken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beginning in 201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initially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Second, gender, ego-resilience, self-esteem, parental monitoring, parental affection, parental consistency and trust, the experience of rejection among peer relationships had effects on the initial statu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Third, ego-resilience, self-esteem, parental affection and consistency, and peer rejection had effects on the change rate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adolescents' ego-resilience and self-esteem had a continuous effect on the subsequent changes. This study revealed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factors, parenting behaviors and peer relationships for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over time. Additionally,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preliminary data in future work aimed at enha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ego-resilience, self-esteem, parenting behaviors, peer relationships

투고일: 2016. 3. 14, 심사일: 2016. 5. 3, 심사완료일: 2016. 5. 10

*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